



합격자
집중 취재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난관도 대화로 해결하는

건설현장의 협상전문가 · 야전사령관

제80회 건설안전기술사 합격의 영광을 안은 동양건설산업 한용수 이사를 소개할 때 늘 함께 붙어 다니는 수석어이다. 지난 78년 대한주택공사 발주의 수원시 매탄동 아파트 현장을 시작으로 25년을 오로지 현장에서 생활해온 그는 공동주택, 종교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 주상복합, 호텔, 오피스텔, 재건축조합 아파트 등 건설업에 망라되는 모든 현장을 모두 경험한 베테랑이다.

특히, 지난 1981년 사우디 주베일 지역의 801-CO2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그는 세계 초우량 건설사인 미국 벡텔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대형 PROJECT를 통해 습득한

PC공법에 대한 당시 첨단 지식을 국내에 접목시킨바 있으며, 1992년도에 구리 교문리 아파트 현장의 경우에는 154KV 전기철탑이 현장대지를 가로지르는 난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완공하는 저력을 보여 왔다.

또한 96년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시흥 시화지구 아파트 공사는 전형적인 점토질 지반으로 인한 파일 공사로 부마찰력과 파일 부상현상 등 다양한 난공사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을 묻는 질문에 그는 2000년에 시공한 최고급형 리조트인 제주 샤인빌





| 제주 사인빌리조트



| 청담동 파라곤

현장을 끝낸다.

“무재해 100만 시간을 달성한 현장으로 당시 제주도를 덮친 태풍 등의 기상악화를 무릅 쓰고 공기 내 준공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이 밤을 낮 삼아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였던 현장이었으며, 그때의 고초로 인해 진정한 건설인이 되기 위해 건설안전기술사 도전을 마음먹은 현장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다양한 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한 그는 풍부한 공사현장 경험을 섭렵한 국내 최고의 건설 기술을 토대로 현재는 동양건설산업 본사에서 기술영업본부의 임원으로 이론과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기술영업 및 BTL, Turn Key, 관 입찰, 민간입찰 등의 수주활동과 실행에 산 편성 등 업무를 지휘하는 회사의 핵심 중추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는 이러한 기법을 일회성으로 이용하지 않고 상대방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개개인의 행복까지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즉,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따뜻한 가슴으로 풀어가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전문가이다.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도서관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해 네 번째의 도전에 드디어 합격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는데, 그는 최근의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 고급화됨에 따라 위험 수위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라며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또 다른 의지를 밝힌다. 🌟

취재/사진 • Willy



| 청담동 파라곤 분수앞에 선 한경보 회장과 한용수 이사